

KIA, 시범경기 5경기연속 무패행진



KIA가 시범경기 무패 행진을 이었다. KIA는 17일 광주 KIA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NC와 2019 KBO 시범경기 마지막 홈 경기에서 6-5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3승(2무)째를 수확해 시범경기 승률 100% 행진을 이어갔다. 선발등판한 제이콥 터너는 6이닝 동안 85개를 던지며 6안타 3실점

NC에 6-5 승리...선발 터너 6이닝 3실점
안치홍 3타점 펄펄...해즐베이커도 3안타

다. 투구수 80개를 넘긴 상태에서도 150km짜리 빠른 공을 던져 스타미너도 합격점을 받았다.

1회초 박민우와 권희동, 박석민에게 연속안타를 맞고 2실점했지만 크리스티안 베탄코트를 산진으로 돌려세운 뒤 양의지를 투수 앞 병살타로 잡아내고 위기를 넘겼다.

6-2로 앞선 5회초 선두타자 김성욱을 볼넷으로 내보낸 뒤 박민우에게 우전안타, 권희동에게 중견수 희생플라이를 내주고 다시 한 점 잃었지만 박석민을 유격수 땅볼로 유도해 병살타로 이닝을 끝냈다.

KIA는 8회 이민우, 9회 문경찬 등 젊은 투수를 활용한 한 점 차 승리를 지켰다.

타선에서는 2번타자 1루수로 선 발출장한 김주찬이 2루타 1개를 포함해 2안타 2득점했고 안치홍이 2안타 3타점으로 펄펄 날았다.

해즐베이커는 4타수 3안타를 치며 기대감을 키웠다. 해즐베이커는 KBO리그에서 개인 첫 멀티 히트를 쳤다.

지명타자로 나선 최형우도 2루타 1개를 포함해 멀티히트로 타격감을 끌어 올렸다. NC 투진스키는 한국 무대 데뷔전에서 5이닝 11피안타 6실점으로 고전했다. 타순이 한비퀴 돈 2회부터 KIA 타자들의 배트 중심에 공이 맞아 나가 아쉬움을 남겼다.

뉴시스



지난 3일 경기도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8-2019V리그, 한국전력 대 대한항공의 경기에서 한국전력 선수들이 홈 마지막 게임을 마친 후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광주·수원’ 한전배구단 연고지 논의

남자프로배구 한국전력 빅스톰의 2018~2019시즌 종료에 따라 모기업인 한전이 기존 연고지 '수원'과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를 놓고 본격 논의한다.

광주는 한전 본사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수원은 배구인프라와 연고지 활약으로 형성된 팬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2018~2019 V-리그 정규시즌 종료와 수원시와 맺었던 계약이 다음달

간 팀은 대전을 연고지역으로 두고 있는 삼성 블루팡스와 충남 천안의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뿐이다. 나머지 5개구단은 수원과 안산, 서울, 인천 등을 연고로 두고 활약하고 있다.

한전은 또 연간 80억원 규모의 1년 운영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고지를 광주로 옮길 경우 이동 거리가 길어지고 4~5일 간격으로 경기가 열리는 점을 감안할 때 선수들이 머물 숙소와 연습장소 마련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운영비가 추

광주 “한전 본사 위치...2020~2021 시즌부터 유치 희망”

수원 “10여년 동안 응원해 준 팬들, 연고지 이전 반대”

30일 끝남에 따라 배구단 연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한전배구단 연고권을 갖고 있는 수원은 지난달 재계약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광주도 지난 2월 초 관계자들이 한전 배구단을 방문해 구두로 2020~2021 시즌부터 유치를 뜻을 전 달했다.

배구전용구장으로 제시한 영주체육관이 올해 7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대회 심크로나이즈 스위칭 경기장으로 활용돼 내년 시즌부터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전은 광주 이전과 수원 잔류'를 놓고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늦어도 4월 말까지는 배구단 연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가장 우선 고려사항은 10여년 동안 한전배구단을 응원했던 팬들의 반응이다.

한전배구단은 지난 2008년 프로배구 남자부 준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수원을 연고로 활약했다. 팬들은 흥경기가 열리면 경기장을 찾았고 만원관중을 기록할 정도로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전은 대부분의 배구단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연습경기 등 이동거리도 고려하고 있다. 7개의 배구단 중 수도권을 벗어

가 될 수 있다.

광주가 주장하고 있는 비 수도권 지역 겨울스포츠 활성화와 한전 본사가 혁신도시에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한전은 광주로 연고지를 옮길 경우 전남과 전북지역의 팬들까지 배구장을 찾을 수 있어 야구와 축구에 이어 전국적인 프로 스포츠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8~2019 V-리그 평균관중은 2100여명으로 지난시즌보다 상승했다.

광주가 제시한 영주체육관은 현재 8200석이며 6000석 규모의 배구 전용구장으로 리모델링해도 5100여석의 수용실내체육관보다 크다.

한전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한전 본사가 가까이 위치해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원의 경우 프로배구 원년부터 형성된 팬들이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연고지 이전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과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광주가 올해는 수영대회를 앞두고 있어 당장 연고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4월부터는 2019~2020시즌 대비를 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자칫 연고지 없는 팀이 될 수 있어 이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 트레이드 요청한 이용규에 육성군행 통보

지난 1월 2+1년 최대 26억 FA계약 맺고 잔류



한화 이글스가 트레이드를 요청한 외야수 이용규(34)를 육성군으로 이동시켰다.

한화는 16일 “오전 11시50분경 대전 구장에 나온 이용규와 면담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육성군행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용규는 지난 11일 한용덕 한

화 감독과 면담에서 트레이드를 요청했다. 전날(15일)에도 구단에 트레이드 의사를 밝혔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문제가 커졌다.

이용규는 지난 1월 계약 기간 2+1년, 최대 26억원(계약금 2억원, 연봉 4억원, 옵션 연 4억원)에

한화와 FA 계약을 맺고 잔류했다. 하지만 계약 첫 시즌 개막 일주일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트레이드 요청했다. 좀처럼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용규가 트레이드를 원하는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국가대표 테이블세터’였던 이용규는 최근 부상과 부진으로 고전했다. 2017시즌에는 57경기 타율 0.263, 12타점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134경기 타율 0.293, 1홈런 36타점을 기록했다.

그 사이 한화는 리빌딩을 기조로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기 시작했다. 이번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도 이용규는 ‘낯선’ 9번 타자로 주로 출전했다.

한화는 고심에 빠졌다. 주전급 선수의 트레이드 요청 사실이 공개돼 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규에게 육성군행을 지시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긴 했지만 갈등이 언제 어떻게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시즌 준비와 함께 생각지도 못했던 숙제까지 떠안은 셈이다.

한화는 “내부 논의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이승우, 3달 만에 도움 후반 막판 ‘레드카드’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B(2부리그)에서 뛰는 이승우(엘라스 베로나)가 3개월 만에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후반 막판엔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았다.

이승우는 1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베로나의 스타디오 마르코 안토니오 벤테고디에서 열린 아스콜리와의 2018~2019 세리에B 29라운드 홈 경기에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그는 팀이 0-1로 뒤지고 있던 전반 36분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페널티박스까지 드리블로 돌파한 이후 가운데에 있던 지안파올로 파치니에게 패스를 찰러 동점 골을 도왔다.

이번 시즌 첫 도움이자 지난해 12월 30일 포지아와 경기에서 시즌 마수걸이 득점을 기록한 이후 첫 공격포인트다.

하지만 그는 1-1로 맞선 후반 40분 무리한 백태클을 시도하다 다이렉트 퇴장당했다. 이탈리아 무대 진출 이후 첫 레드카드다. 팀은 1-1로 비겼다.

이승우는 오는 22일 열리는 볼리비아(울산)와 28일 폴로니아(서울) 국가대표 평가전 명단에 포함됐다.

지역광고 마케팅장소 정편리팀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리산산천, 창세미담, 화연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묵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